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환난을 감사로

계속되는 고난을 회개와 중보, 사랑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 통해 예수님 안에서 극복해야

최근 충현의 성도들 중에 질병과 사고로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를 간절히 부탁하는 손길들이 적지 않다. 더구나 지난 두 주간에는 엄청나게 쏟아진 폭우로 인해 전국적인 피해가 속출하는 중,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 중에도 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가족이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나라로 회자되던 이 땅에 이제는 각종 재난들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개월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IMF와 더불어 이제 막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경제한파. 그러나 그보다 더욱 먼저 시작된 것은 계층과 신분을 초월한 영적인 부패와 자라나는 세대들의 사회적 무기력증이었다. 교회 지도층들의 부패와 개교회 이기주의가 순수한 평신도들의 입에 병소적인 대화의 주제로 오르내리는 것부터 심각한 재난이었다. 무리하게 건축을 시도했던 교회들이 부도를 내고 문을 닫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한파에 따라 실직하거나 파산하는 성도들, 그리고 줄어드는 헌금으로 인해 전통당하는 교회들도 늘고 있다.

이러한 환난의 때에 교회는 자라나는 세대들의 영혼을 위하여는 젊은이 예배와 선교적 도전을, 환경적인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섬김과 기도와 중보의 인도로 극복하는 삶을 꾸준히 강조중이다.

이 때를 맞아 충현의 성도들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아름다운 격려와 사랑의 나눔,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섬기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였다. 그리고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에서 합심하여 진행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감사로 바꾸는 은총을 힘입을 수 있어야겠다.

단기선교

인도, 몽골팀 귀국

11월 12일, 7박 8일의 일정으로 단기선교 사역을 감당한 인도팀과 몽골팀이 지난 3일(월)과 4일(화)에 각각 귀국했다. 인도팀은 음식과 약간의 열병으로, 몽골팀은 갑자기 몰아친 폭우로 인해 사역에 일시적인 방해를 받기도 했지만, 두 팀 모두 끝내는 최선을 다한 사역을 잘 마치고 귀국하게 된 것이다.

팀원들 모두가 영혼과 육신이 섬을 얻고 빠른 시간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선교적 비전과 실천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마지막 여름수련회

청년2부, 예비다부 성인반

98년도 여름수련회가 청년2부와 예비다부 성인반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청년2부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청년'을 주제로 하여 수련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예비다부 성인반 수련회 역시 충현기도원에서 8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진행했다. 예비다부의 금년 주제는 '새롭게 살자'이다.

농어촌전도대

금주에는 10개팀이

계속되는 농어촌전도대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에 다나온 7개팀에 이어 금주에도 10개팀이 강원도 정선과 춘천, 경남 진주, 전남 고흥 등으로 출발한다. 금주에 떠나는 팀은 13교구와 대학부 3학년, 낙도전도팀과 청년1부의 7개팀(7-13팀) 등이다.

성도들의 계속적인 기도 지원에 힘입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모든 농어촌전도대들과 현지교회들과 기도하는 성도들 위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길.

후반기 장학생
훈련 및 기도회

8월 21-22일 충현기도원

충현소식장학회는 지난 1학기에 선발전 일반장학생 및 전액장학생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8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충현기도원에서 훈련 및 기도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년 훈련의 대상자는 대학 및 대학원생 109명, 고등학생 28명, 그리고 중학생 23명 등 총 160명이다.

장학회는 1학기에 장학금 수여받은 일반장학생의 경우 성적(B학점) 미달자 외에는 전원에게 2학기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며, 전액장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20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이는 중이다. 한편 일반장학생의 경우 전반기 누락자와 선발 기준에 따라 인정된 자는 소수를 추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은 9월 13일 주일 찬양예배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다. 영어예배부에서는 10주년을 맞아 8월 23일 주일에 그동안 영어예배부를 거쳐간 가족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리는 특별예배와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 중이다. 해당되는 성도들은 23일 주일 오전 8시 40분까지 복지당이나 홀에 모이던 편다.

교정전도회
춘천소년원 여름수련회

10일부터 14일까지

교정전도회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춘천소년원 여름수련회가 내일 10일부터 14일(금)까지 4박 5일만에 걸쳐 춘천소년원(신촌중학교)에서 진행된다. 금년 수련회에는 소년원생 400여명과 지도직원 60여명, 그리고 교정전도회 임원 및 교사 4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교정전도회는 소년원 여름수련회가 큰 영적 전성이라는 전제하에 매년 이를 위해 뜨거운 기도로 준비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매일 최소한의 수련시간을 제외하고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전도회는 이번 수련회를 위해 자원교사뿐 아니라 기도지원부대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금년 수련회의 집회 인도는 이승학 목사(14교구 지도)와 박양진 전도사(교정전도회)가 맡게 된다.

조지 풀러 교수의
히브리스 강의를 책자로 발간

교육훈련원과 교육연구소는 지난 2월에 실시된 정기훈련시 강의를 맡았던 조지 풀러 교수의 히브리스 강의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책자로 발간하였다. 풀러 교수의 강의를 통해 히브리스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강령하게 붙여나갈 바 있다. 교회 일꾼들 중 책자를 원하는 성도들은 교육관 1층 교육자료가서 받으면 된다. 한편 책자는 일일당 한 권씩만 가지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8년도 제3차 학습 세례

8월 16일 찬양예배시 본당에서

오늘 마지막 교육 후 문답

지난 주 2일부터 시작된 98년도 제3차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3시부터는 구원론 및 율야세례 강사가 진행되던 문답은 3시 50분부터 각 교구별로 지정

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해당자들은 진행에 차질이 빚이지 않도록 미리 교구교역자들에게 문의하여 시간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9일 (주일)	1시	구원론	교육관 307호	구원론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론	교육관 310호
	15:00-15:40	(이승학 목사)		(이승학 목사)		(김희주 목사)	
	2시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지역 찬양예배, 본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김창인 목사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포도원에 대한 약속

(사 27:1-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질려와 형극과 같은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박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뱀에 대한 심판의 때를 당신의 주권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때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날입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다가를 ‘그 날’입니다.

(1) 심판의 도구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1절)
칼로 심판하십니다. 칼이라고 하니가 원자탄보다는 힘이 없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칼의 위력은 첫째, 견고합니다. ‘견고하다’는 말씀은 잔혹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톡니다. ‘톡다’는 말씀은 한 칼에 세계를 덮어 버려 피할 땅이 없고 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강합니다. ‘강하다’는 말씀은 건널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무섭습니다. 견고하여 반대하거나 업신여길 자가 없고, 톡나고 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은 신령한 의미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엡 6:17)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히 4:12).

(2) 심판을 받을 자

① 뱀 리위아단을 심판하십니다.
“... 뱀 리 위아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위아단을 벌하시라...”(1절)
‘뱀’은 사탄을 가리키고 사단이란 말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그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그 날에 사단에게 소속된 반역자들, 즉 영성을 거스리는 반역자, 부모님을 거스리는 반역자, 스승을 거스리는 반역자, 나라를 거스리는 반역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자를 심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리위아단은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이 강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가 동맹을 맺어 바벨론에 대항해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하였고, 잔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 죽이는 것보다 모든 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런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메루살림을 점령하여 유다 백성들이 심할하고 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세계의 모든 나라가 억울함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되자 리위

아단은 바벨론은 하트뱀에 이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② 용을 심판하십니다.
“...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1절)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거나 ‘바다의 용’이라고 하면 세상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먼저 마귀를 가리킵니다. 또한 세상을 주권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당신의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최고의 문명국이며 마법과 방어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요술이 성한 우상숭배의 나라였으며 선민을 멸종시키려고 계획한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애굽도 세계가 손을 댈 수 없는 무서운 나라였지만 애굽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오자 여지없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2.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어떠한가

(1)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①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스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포도원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나 여호와와 포도원지기가 뉘이여...”(3절)
하나님이 포도원인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포도원의 농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섬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농부가 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 하나님이 포도원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면서 다스리십니다.
“... 때때로 물을 주시라...”(3절)
“때때로 물을 주시라”는 말씀은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를 주어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물은 첫째,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둘째, 영의 안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셋째, 풍족한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물을 주시며’는 성령의 은사를 뿌리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② 하나님이 포도원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아무도 상하지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 밭밭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시라”(3절)
하나님은 뱀과 용의 세력이 포도원에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간수’라는 말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악의 세력이 중한 세상에서 하나님

의 보호가 아니면 포도원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인 교회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개인도 보호해 주십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었더라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한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정에 손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

둘째, 온종일 보호하십니다.
“... 밭밭으로 간수하여...”(3절)
‘밭’은 평안의 때를 말하고 ‘밭’은 어로운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도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③ 하나님은 포도원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질려와 형극을 뽑아버리시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으니 질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4절)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질려와 형극”은 무서운 가시나무입니다. 질려와 형극이 나라가 되면 포도원을 가시로 찢고 그 자리마다 영당 분을 빼앗아 금기하는 포도나무보다도 더 크게 자라서 햇빛까지 가려 포도나무를 이 재대로 자랄 수 없게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질려와 형극 같은 존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쓰러트리려고 꾀박합니다. 이런 존재들이 장난질을 할 때에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 성도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밟아 버리시니.

둘째, 질려와 형극을 모아 불사르시니.
“... 내가 그것을 ... 모아 불사르리라”(4절)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칼을 가지고 나오셔서 원수인 질려와 형극을 보시고 뿌리까지 뽑아서 불타 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약하고 보잘 것 없다는 말입니다. 몸이 병들고 지식도 없고 전론도 좋아서 보잘 것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믿음의 뿌리가 박히기 때문에 붙어있고 끄덕하지 않습니다.

② 용이 뜰게 됩니다.
“... 이스라엘의 용이 뜰고...”(6절)
‘이스라엘’이란 말은 선자를 말하고 ‘용’은 신앙을 말합니다. ‘용’은 땅 속 길이에 뿌리가 박힌 다음에 돋는 법입니다. 밖으로 선전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신앙의 뿌리를 박았습니.

‘용’이 조금 나온 것을 보니까 승리하는 신앙의 뿌리를 박은 것이 분명합니다. 충현교회는 이렇게 용이 돋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 꽃이 피게 됩니다.”
“... 꽃이 필 것이라...”(6절)
‘꽃이 필 것이라’는 말은 기쁨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야곱처럼 볼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뿌리를 깊게 박고 용이 돋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보통 용이 아니라 금석한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얼마 후 또 보니까 아름다운 꽃이 필니다. 향기가 진동합니다.

③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6절)
이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자기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나눠 줄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지면에 가득 차서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하늘에 대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5절)
하나님과 화친한다는 것은 회개하여 용서받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칼이 나타나는 날에는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질려와 형극과 같은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박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

(2) 포도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결과
① 뿌리를 박게 됩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6절)

다음 주일 설교



김성곤 목사

환영과 거절

(누가복음 8:37, 40)

“타협하지 않는 굳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여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로 모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는 진실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환영과 거절의 동기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환영과 거절을 현저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예수님을 향해 떠나가고요 요구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환영하는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부정적이며 다른 한쪽은 긍정적입니다. 양쪽의 무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행동할 만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기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환영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 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본문의 말씀이 들려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는 자들의 동기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갈릴리 맞은 편에 있는 가사사의 땅에 도착하시자 귀신 들린 벌거벗은 자 하나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명하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군대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마침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대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떼는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물사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있는 거사사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본 일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을 보리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웃을 일이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다 두렵더라”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귀신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며 거사사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그들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네”(35:37절).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인간도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심하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

해 깨끗함을 받고 그로 인해 돼지떼가 죽은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참으로 울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론에 근거하여서 참으로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완강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져서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가치한 거절

우리는 울지 못한 동기에서 비롯된 그들의 행동이 참으로 부당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죽은 돼지떼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자신들의 소유물을 지키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자신들의 삶 속에 모실 수도 있었으나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보다 물질, 미래보다는 현재를, 영혼보다는 육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언젠가 그들의 영혼이 꾸짖음을 받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무지 중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기를

예수님을 거절한 본문의 사건이 여러 분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중에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거절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숙고하십시오.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며 성령님만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죄를 범하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함으로 죄를 범하고 거절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가시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

지 않을 때나 울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현저히 드러냅니다.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는 거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닌 길로 가는 것은 아주 작고 미묘한 문제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할수록 사탄을 인정하고 저항하는 능력은 저하됩니다. 성령님보다 우리의 가진 것, 돼지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순위는 뒤바뀌어지고 초점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눈 앞의 평안을 위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려 예수님을 거부할 때, 또는 예수님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며 그분이 주시는 축복할 수 없는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본문의 거사사인들처럼 현재의 만족과 안일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자들의 동기

이제 가사사의 반대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굳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여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로 모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는 진실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거룩한 권세-성실, 공의 등-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문을 완전히 믿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누에 보이는 것을 볼듯하고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시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손에 쏙 놓고 예수님의 영성에 마음을 얹으십시오. 그분을 우리의 영혼에 모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의 중심에 모시고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약속하신다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며 성실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

먹으리라”(계 3:20).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기쁨이 되시며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생명, 영생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업상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여야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환영하지했습니까 아니면 순간 예수님을 거절하지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다면 여러분은 자녀가 그저 속히 낫게 될 것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간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환영하기

삶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복을 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을 환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충현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고난을 겪을 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 많지 않은 성도들만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굳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여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로 모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는 진실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거룩한 권세-성실, 공의 등-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문을 완전히 믿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누에 보이는 것을 볼듯하고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시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손에 쏙 놓고 예수님의 영성에 마음을 얹으십시오. 그분을 우리의 영혼에 모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의 중심에 모시고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약속하신다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며 성실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

그러한 환영은 세상의 고통을

만일에 우리가 세상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환영한다면 그것은 실상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이거나 세속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스리랑카 선교 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도구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권영일
(스리랑카 단기선교팀)

근심을 넘어서

98년 여름, 아름다운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리랑카, 그곳에는 세밀하고 역동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들의 사역지로 정해진 스리랑카는 벅찬 상태였다. 스리랑카는 대륙과 미얀마에 이어 인구의 70%가 불교도로, 더구나 석가모니의 탄생지, 국교가 불교인 나라, 개신교도가 전체 인구의 0.8%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 따라서 우리는 ‘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위험하지는 않을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다. 이런 생각은 아마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기쁨이 장대한 아낙자들을 본 후 스스로를 배부기로 치부해 버린 이스라엘 족속의 생각과도 같은 것이었으리라.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민수기 14장 7절 이하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미 확정된 승리

과연 그러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휴가 문제, 재정문제, 언어훈련문제, 숙소문제 등등 우리가 기도할 때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스리랑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었던 것을 깨닫게 수 있었다. 이 승리에 대해 누군가는, 성령께서 스리랑카 현지에서 아주 강력한 대로를 쏘아 이미 사탄의 견고한 진을 초토화 시켜 놓았고 우리는 단지 다니면서 저항할 힘이 없는 역들을 확인 사살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단의 방해로 물리치고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떠나기 전부터 사탄의 방해공작은 끊임이 없었다. 예를 들면,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분열되게 하려 하기도 하고, 한 자매의 경우, 떠날 날을 며칠 앞에 두고 회사원 전체의 휴가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동역을 불가능하게 하여 팀의 구성을 깨뜨리려는 방해도 있었다. 이때 우리는 단지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흠어진 마음을 하나되게 하시고, 떠나기 이틀 전에는 극적으로 휴가를 얻게 하시어 팀 구성의 변동 없이 함께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

이러한 강력한 주님의 역사는 가는 길과 오는 길에서도 느낀 것이었는데, 비행기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하루 길을 가야 했었지만 우리들이 가져 가야 하는 집(구호물품, 선물, 물전자, 의약품, 영상소형장비 등)과 우리들이 그곳에서 가져와야 하는 집(스리랑카 성경, 선교자료 등)을 챙기고 운반하는 데 있어서 짐이 분산되었다거나 무게 제한 때문에 짐을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하나도 없이 신기한 정도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세밀하신 성령의 역사

또한 강력하고, 세밀하며, 섬세한 성령의 역사는 사역기간 가운데에도 밝혀 드러났다. 콜롬보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함께 사역한 스리랑카 형제, 자매들(세례받고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들을 예비하셨음을 볼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삶의 분량과 삶의 터전이 주어지지 아무 상관없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시점과 한 공간 상에 우리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되게 하셔서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게 외국 인 근로자 가정방문 전도와 노방전도 사역을 하게 하셨다. 가정방문 전도사역은 세례받고 돌아갔거나 아직 귀국하지 않은 스리랑카 형제, 자매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그 지역에 교회 설립의 가능성에 타진해 보는 것이었고,

노방전도사역은 우리가 외지 않으면 그들의 평생에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또 사영리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것이었다. 가정 방문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그 가족들의 결심으로 많은 결실을 보게 하시서

▲ 콜롬보대학에서 행한 개인 전도.

교회 설립에 대한 급박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스리랑카 지체들이 준비해준 숙소를 기반으로 한 노방전도와 그들과의 사귀를 통해 마음 초정전치를 벌이고 ‘예수’ 영화 상영과 ‘Hands’ 공연, 그리고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성령의 역사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는데, 마음을 전지 후에 간절함으로 발작을 일으킨 소년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소년이 정상으로 돌아와 마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던 일과 다리가 아파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던 한 자매의 어머니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과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일의



▲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전도 집회를 가지면서 홍보 기도를 하는 대원들.

증거자가 되었던 일, 그밖에도 구구절절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확연히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며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셨다.

남은 것은 감사와 찬송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한 진한 감사와 감동만이 남아 있는 98년의 스리랑카 여름 사역은 지나간 과거로 우리의 삶속에 녹아져 있다.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인해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된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한 아쉬움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보고 느낀 것들을 잘 정리하며,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단기선교가 아닌 평생선교로 다져나가기 하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그리고 이번 사역을 통하여 가장 크게 느끼게 하신 것은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과 나의 하나님의 도구로써 사용되어진다는 것이다.

사역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점에서 사역기간 중에 주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잔잔하게 나의 마음에 밀려 온다.



▲ 외국인근로자사역부에서 신앙생활하던 교우의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

단기선교 이요저요

◆ 인도 단기선교팀과 몽골 단기선교팀이 8월 3일(화), 4일(화)에 귀국했다. 두 단기선교팀이 선교지에서 접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는 주간총회 4면과 금요집회에서 온 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것이다. 또한 사진 전시도 준비하고 있다.

◆ 중국 2단기선교팀이 7월(금) 오전 9시 교회를 떠나 중국을 향해 출발했다. 고등부 학생 4명이 포함된 중국 2팀은 그동안 중국이 훈련하는 물론 국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 준비된 중국 2팀을 통하여 성령께서 중국 땅에 복음을 심어 주시리라 믿는다. 귀국 예정일은 13 일(목)이다.

아버지

요즘 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말없이 희생하시는 아버지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기만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여 보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

나의 아버지를 말한다

전 승 기(71통기)

전승기 형제는 춘천 단기사역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아버지 사랑을 들어 봅니다. 아버지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현재는 아버지 혼자 강원도에서 자취생활을 하시며 교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1. 아버지로 부터 물려 받은 유산이 있다면?

인정 또는 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복에서 피난을 오셨는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피난오신 분들은 모두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2.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다면?

강원도 하장성에서 어린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미취학 아동일 때 아침마다 아버지, 형남, 저 그리고 우리 집 개, 이렇게 넷이서 조깅을 했어요. 눈이 내린 날이었는데 뒷동산에 오를 때는 땅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러올 때는 추운 날씨 때문에 몸이 꽁꽁 얼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업고 내려오셨는데 지금도 그 체온이 느껴집니다. 또 아버지께서 밖에서 지치신 모습으로 들어오셨어도 저희들을 보면 수면단 턱으로 우리 얼굴을 비비시곤 했어요. 우리는 따갑다고 아우성을 치곤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 모습이 흥으셔서 큰소리로 웃으시곤 했죠.

3. 이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어머니께서 장남을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때 개구장이에다 말쑥하게 기웠거든요. 만약 형하고 저하고 둘 다 잘못을 하면 어머니께서는 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공평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를 많이 챙겨 주시고 고맙고 감사하리라고 주셨어요. 그럴 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느꼈죠.

4. 아버지가 안쓰러워 보일 때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운동을 하셔서 건장하셨는데, 뒷모습이 처지고 외소해지시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60이 되신 나이에 강원도에서 홀로 자취하시며 손수 밥을 해서 드실 때 많이 안쓰러워요. 제가 빨리 안정이 되어서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있나 ...

5. 가족중 어머니와 본인만 믿고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태도는 어떠하셨나요?

먼저 제가 아주 이것을 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기였을 때는 식구

가 교회에 갔어요. 예배 도중 형이 아주 심하게 경기를 일으켰어요.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안나가시고 절에 나가셨어요. 외가쪽은 모두 크리스천이고 친가쪽은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때 어머니께서 다시 교회에 나가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때 열심이 있으셨는데 한 번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해못하시고 성경책이라든지 십자가 등을 눈 앞에서 치우신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요.

6.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을 치우신 후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셨어요. 가정의 모든 열쇠는 어머니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말씀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셨죠. 변화가 있었다면 어머니의 생활적인 시간 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교회에서 5시간을 있었다면 4시간만 있고 가정생활에 그 시간을 사용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정에 충실한 쪽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죠.

7.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

저희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이 많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정에 이끌리다보니 인간적인 관계에서 끊고 맺는 것을 잘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이성적이고 냉철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정이 있되 어머니처럼 이성적이어서 끊고 맺는 것을 잘하고 싶습니다.

8.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한마디.

아버지께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불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지쳐서 기도가 중단된 적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라고 합니다. 온 가족이 다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디다. 그리고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저에게 실망하셨을 때가 많았을텐데 표현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터뷰는 청년1부 금요철야가 끝나고 유아부실에서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청년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디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약간의 방해도 있었지만 옆에서 조용히 기타 연주를 통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준 최형호 형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리

정 호 숙(68통기)

아버지께

나 유언이 묻어나는 고한집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 봄에도 한껏 아로다웠을 철쭉과 제비꽃들의 마라 이마리들을 뭉그러미 바라보며

지고 만 꽃들의 화려했던 모습을 기억해 보려고 애를 씁습니다. 지방 출장실에 불쑥 들른 우리집, 전화로 반지 알릴래

예상은 했지만 엄마는 멀리 외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조용한 집안엔 바람처럼 옛 추억만 가득합니다. 아버지 손길에 사시사철 머물렀던 외방간엔 이제 마리조차 떠난 모양입니다.

이른 봄. 아버지가 손아지를 장에 내다 마실 때면 애절하게 울어대던 착한 엄마 조.

그 커다란 눈이 너무 슬며시 보아 나도 감이 울고 싶었었지요.

마루에 누워 봅니다. 제비가 그 위 천정에 집을 짓곤 했었지요. 중학교때까지 우리들만의 공간으로 문을 닫고 싶어했던 작은방.

오빠들, 그 후 언니들이 이 방을 쓸 때 나는 거기에 한 번 끼어 보고자 치열한 전투를 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그곳에서 어떤 선택들이 일어나곤 했는데, 목소리 큰 이숙언니를 내가 얼마나 원망하며 웃방으로 가곤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런 여름일 때만과 해발이 그들은 아버지가 집안 어디에서가 일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면 언제나 나오시곤 했죠.

탄방에서건, 학간에서건, 뒤마에서건, 아버지는 흰 바스매 티셔츠가 젖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웃으시며 나타나셨어요.

아버지 때마침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네요. 불현듯 숨구치는 그리움을 고향의 가슴에만 고이 접어 놓고

이제 낯선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할 시간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성하도록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쓸쓸해지는 가슴을 위로해 보지만 아버지의 자리는 너무 마뻐했던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고 정정하여 햇빛에서 알하릴 수 있는 엄마가 언제든지 나를 맞아 주실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엄마께는 그냥 왔다 가도라고 선포기 옆에 쪽지만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멀리 쉬실

아버지께 문안 인사 해주면서 소망을 갖고 출발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바라시던 대로 늘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 할 거예요.

덧날과 외방간을 한 번 더 돌아보며 가방을 손에 듭니다.

사랑하는 딸 드림

농어촌전도 사역 보고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김부영
(집사, 15교구)

15 교구 농어촌전도팀은 3박 4일의 사역을 위해 7월 20일 오전 10시 교회 마당에 집합하였다. 교구장 강준을 장로님의 기도 후 목격자인 강원도 원주 반석교회를 향해 출발하였다. 선발대 12명은 3시간만에 그 곳 목사님 내외분과 집사님들의 환영을 받으며 목격자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교회 인근에는 39가구가 살고 있으며 교회는 35년 전에 세워졌고 현재 개신 이후목 목사님은 8년 전에 부임하셨다. 하지만 35년 전에 세워진 교회의 교인수가 10가정, 20여명 정도였고 어린 생명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 재정 문제도 어려워져 무척 안타까웠다. 그러나 목사님 내외분은 축조 전도로 많은 생명들이 다시 교회로 모일 것이라 하시며 그저 기뻐하셨다.

집을 풀고 개회예배를 드렸다. 개회예배가 끝나자 우리는 예배당 마루 바위에 이르러 축조전도를 비롯한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쳐 기도를 드렸다.

둘째날 후발대로 미용팀과 의료팀 5명이 도착했다. 오후부터 마을회관에서 봉사가 시작되었다. 의료팀들은 치료하면서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자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외쳤다. 또 미용팀도 파마와 컷트를 무료로 받아 미안해 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저희가 하나님 덕분에 이 기술을 배웠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봉사가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분께 감사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봉사를 위해 많은 주민들이 "고마워라"고 꼭 초청장지에 인체로 "는" 말을 했다.

오후에는 이장제 장로님과 5명이 수박과 음료를 가지고 오셨다. 이 분들을 환류하여 2인 1조가 되어 마을과 건나 마을까지 축조 전도를 했다. "복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다" 찬양하니 다리에 새 힘이 생겼다. 저녁에는 축조전도의 소감, 반성과 다음날 있을 성경학교 준비를 점검하고 기도로 둘째날을 마감했다. 집행위원의 짜디싼 예산에서 오병이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났다.

셋째날 새벽에 남용철 집사님과 3명이 이명규 집사님이 보내 주신 우산을 가지고 오셨다. 첫째날과 둘째날은 구름기둥으로 인도로 주서서 감사했는데 그 날은 아침부터 맑은 하늘을 주셨다. 그러나 아이들이 부서별로 발표회를 하는 이중 감사하던 돌풍이 불어 천막이 쓰러졌다. 하지만 얼마 후 천막 돌풍은 사라지고 비만 내리기 시작

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우산을 보내 주시고 저녁집회를 위해 주민들이 농사일에서 손을 떼고 초청장지에 참석하도록 하신 것이다. 여름성경학교의 폐회예배를 마치며 아이들을 돌려 보낼 때 그들의 손에 우산들이 퍼져 있는 것을 보니 비가 오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웠다. 성경학교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불신가정에서 자란 유치부의 '홍성아'라는 여자아이인데 마지막 날만 빼고 새벽예배를 매일 출석하였고 분반공부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장난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예비하시니까 난 기도할 때가 제일 좋아요"라고 하여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다.

그 날 저녁 초정잔치. 저녁 8시 25분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 우리의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30분, 40분이 되자 뒤가 꼭 차서 먼저 앉아 있던 우리들은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아야 했으나 너무 기뻐했다. 그 중에는 성야의 부모님과 동생도 있었고 할머니께서 허락한 하시던 교회에 나오겠다는 결심도 들을 수 있었다.

그 곳 교우들이 직접 농사지어 주신 감자와 오이, 가지, 자두, 또 소스를 제공해 주신 할머니 집사님의 두부, 사도님이 해주신 풍곡수와 감사전 등으로 우리는 육의 양식을 채울 수 있었고 특히 표복심 집사님께서는 식사와 아이들의 간식을 책임져 주셨다. 이 분들의 따뜻한 정성과 사랑을 뒤로 하고 우리는 서울로 향했다. 반석교회의 목사님 가족과 그 곳의 영혼들 위에 성령님이 함께 인도하시며 특히 어린 영혼들을 통해 그 가정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있어나도록 기도드리다.



수련회를 마치고

말씀과 교제가 충만한 수련회

조정숙
(관할, 3교구)

호 산나현재단원들은 7월 9일 오전 9시 50분 김성관 목사님의 간접집사 기도 후에 버스 타고 충현기도원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창밖에는 소리가 울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과 들이 푸르름이 일제히들 돋보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매죽마 사절 찬양예배 때 후호 산나현재단에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은 세상 만물이 주만 송하야라 천지 창조하신 주 찬송하라!'

기도원에 도착했을 때 인자하신 장로님과 다른 성도님들의 환한 미소 속에서 주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문관 목사님(호산나현재단 지도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어"와 3곡의 찬송을 정발 힘있게 기쁘게 감사찬송을 드렸습니다. "나의 찬송에 드림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

양선자 대장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는 후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뜻기 1장 1-15절까지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초점을 뜻기 아닌 나오미에 맞

추어서 말씀하시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깊은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송순 집사님(호산나현재단 지주자)이 신앙 간증을 하시고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늘 기도하십시오. 이미에 땅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애써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명자 총무 권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것이 자랑과 체력 단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때는 모두가 갈라 났었고, 너무 우스워서 매를매를 구르기도 하였답니다. 우리 조로 나누어서 운동경기를 할 때는 10대 소녀들처럼 힘있게 응원도 하고 열심히 뛰는다는 마음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히 바쳐지는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정성을 쏟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기도원을 떠나오면서 '모든 것 주심 감사'의 찬양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창립 10주년 맞이하는 영어예배 (CHEWS)

이부성
(집사, 영어예배 부관)



오는 8월 28일은 우리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어예배부가 개설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영어예배부(Choong-Hyun English Worship Service : CHEWS)에서는 오는 23일 주일 아침 9시부터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를 복지관 지하 1층 가나호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날은 영어예배부의 Homecoming day로 정하여 그동안 직, 간접으로 관련되신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축하하고자 한다.

1988년 서울을땀땀을 게기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때가 복을 전파의 최대의 기회라 생각하여 드디어 영어예배부를 개설하고 5대양 6대주에서 온 올림피아 관계자, 주한미군 및 외국인을 상대로 그 당시의 한국 교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영어예배를 시작하였다. 28일은 정하우 장로가 부장을 맡고, 지도는 윤영택 목사가 담당하였다. 30여명의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복음 전도로 인하여 참여하는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오늘날에는 200여명이 모이는 영어예배부로 성장, 발전하였다.

영어예배부는 곧이어 영어교육부를 개설하여 1989년 초에는 최초의 겨울영어성경학교(Winter English Bible retreat)가 열렸다. 현재 영어교육부에는 유·소년부(Elementary), 중·고등부(Youth), 대학·청년부(Young Adult), 성인부(Adult)가 있으며 내,외국인 30여명의 교사와 200여명의 학생이 열심히 영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또한 3년 전부터는 국제교구가 구성되어 외국인들과 함께 교구 모임을 갖고 있다.

그동안 영어예배, 영어교육부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이곳에 우고수하신 많은 분들의 수고의 열매가 오늘에 성숙적인 영어예배부로 성장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 곳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간 외국인들도 수백명이 축하되리라 믿는다. 그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이 곳에서 배우고 익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네덜란드, 홍콩, 미국, 필리핀, 파키스탄, 일본, 모잠비크, 수단, 말라위, 콩고,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30여개국가에서 오신 교역자, 학생, 의료관, 군인, 교사, 사업가 등이었다. 특히 1995년 7월 16일 주일에는 레이니(James, T. Laney) 주한 미국대사 가족이 영어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홀트 입양아 및 양부모 초청행사,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전도 및 바자회 등 교회의 국제적인 행사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여 봉사하고 있다.

영어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복지관 지하 1층 가나호에서 드리고, 영어교육부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복지관 1, 2층, 지하 1층, 지하 3층에서 갖고 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지체들 소식

영아부
『교회』에 대해 알아봅시다

영아부는 8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배운다. 교회가 예수님의 입과 발과 손이라는 것을 아기들에게 알려 주고 교회에서 하는 일과 우리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아본다. 아기와 함께 할 공과주와 자료를 선생님들이 집에서 준비하여 아기들과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배우며 교회에 속해 있는 모두를 아끼며 사랑해야 함을 알게 한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활짝 열려 있는
유아부실로 들어오세요!

강마 뒤에 키가 볼록 큰 알마당의 나무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날마다 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날 보이지만 얼마나 지체로운지 잠깐 놀랄 때가 많습니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죠?"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의 눈이 얼마나 빛났는지, 감탄을 합니다. 4, 5세 어린이를 두신 어머니들, 무한한 가능성 가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유아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임미순 통신원)

유지부
조물조물, 괴물괴물

유지부 어린이들의 손이 물고기와 딱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밀가루 반죽은 어느새 노란 고동색이 되고 불꽃 떡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손수 준비하셨습니다. 2000년 전 제

자들을 세세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어린이들의 인적 속에, 생활 속에 그대로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니다. 8월 11일(토)에는 찬양대 여를 캠프로 열립니다. '찬양하는 어린이들'에게 향하는 찬양대 어린이의 기도와 축복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조인혜 통신원)

유년부
감사와 감동의 하모니

교회에서 하루를 지는 훈련과 함께 공동체 신앙의 참 뜻을 성경 공부와 각종 개인으로 배웠던 여름성경학교가 벌써 지난 달의 아기가 되었습니니다. 이런 학생들과 모든 찬양대원들은 참으로, 순서마다 재미있고 의미있고 특별했습니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31명의 신입 친구들을 환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니다.

특히 삼 속에서 꽃처럼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 감동한 일 세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니다. 그 첫째는, 병간호예도 정신이 없었음에도 특별 행사에 참여해 주신 김현철 부장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부부애와 참된 회생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니다. 집사님, 기도로 압내시! 둘째로, 전국연합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을 끼니 반주로 힘차게 연주해 주신 진도과장 이경숙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방학 때인 요즘에는 신일과장 김병과 집사님과 함께 방편 전도에 사명을 다해 헌신하고 계신다습니니다. 우리 집사님 팀이! 셋째는, 8월 중순 방글라데시 담당 팀장으로서 출국할 계획을 앞에 놓고도 여름성경학교

에 참석해 주신 서기 과장 이상일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낯설고 어려운 문화적 환경에서 직장을 통한 봉사과 신앙을 지키며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셨습니니다. 감사드리고, 부디 작은 선교의 동태지기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김현주 통신원)

중등2부
더욱더 기도해요

지난 2일 중등2부 교사실에서는 지난 수련회에 대한 교사 평가회의가 있었습니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한분 생각하시고 서로의 느낀 바를 나누면서 우리의 수고를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니다. 갖가지 장으로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든 많은 것을 견디지 못한 것 같은 몇몇 중등2부 친구들! 그러나 그들이 있음으로 우리가 더욱 기도가 되고 그 기도 덕분에 교사들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니다. (서영혜 통신원)

청년2부
여름수련회에 초대합니다

30대 청년 성도들의 신앙공동체인 청년2부는 다가오는 8월 13일(목)부터 8월 15일(토)까지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8월 13일 아침 9시 30분 교회 본관 배다니룸에 집결하여 10시 청년기도원(경기도 광주 소재)으로 함께 출발하며 회비는 만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벧 2:5) 말씀의 주체 성구로 한 이번 수련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 돌아보며 다시 한번 영적 생활의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 30대 성도(자녀 포함)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정호영 통신원)

15교구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

IMF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 큰 티끌의 시작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어두운 모습들이 연일 TV뉴스와 신문의 사회면을 차지하고, 지금 직장 있는 사람들 불안한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같이 편안한 삶은 너무나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병이기의 기적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지만 다른 혼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떠나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먹고 배부른 연고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 복음을 도둑배 방망이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공원에, 지하철 지하도에 심지어 가정집을 두드리고 노숙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이때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때다. 15교구 식구들도 이제 기도의 질을 바꾸어 "IMF를 속히 취회 주소서"가 아닌 "IMF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교구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중국 단기선교팀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 부탁과 더불어 어려움을 당한 교구 식구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 교구모임을 마쳤다. (한종성 통신원)

탐방 - 고등부



대학 입시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또 요즘엔 낙도 사역과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고등부(부장 임주원 장로, 지도 조문찬 목사)를 탐방하였다. 고등부는 9시에 있는 학생 기도회로 주일 아침을 연다. 주로 학생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기도회에 참여한다. 그리고 10시부터 고등부대 소그룹들의 활동이 시작된다. 12시 40분이 되면 각자의 반에서 분반 공부를 하고 1시 30분에는 고등부 집회와 드려지게 된다. 1시간 정도의 집회가 끝나면 고등부 회원들은 점심이 드리는 예배인 5부예배를 드린다. 주일에 학생들이 봉사하는 고등부대 소그룹은 7개이다. 고등부의 모든 행사들을 준비하는 등의 일을 하는 학생

“교회의 미래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와 고등부의 매주일 소식과 회원들의 글을 회지로 yearly로 연말에는 회원들의 글과 1년을 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로이노우'지를 만드는 편집부가 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 근처로 노방 전도를 나가 전도 활동을 하는 바울 전도부, 여러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성구를 준비하는 성구부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신입부가 있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아드나엘이 있다. 그리고 고등부의 모든 움직임을 남기는 작업들을 하는 방송반은 집회의 모든 시간들을 비디오로 남기거나 고등부의 여러 행사 때마다 사진을 남겨 고등부의 홍보를 맡고 있다고 한다.

고등부 회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학교 전도를 할 수 있는 학교 모임 들로스가 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고등부 회원이 5명 이상이면 그 학교의 들로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지금 활동 중인 들로스 모임이 있는 학교는 47개라고 한다.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 정한 시간에 모여 3주 동안은 들로스 회원들끼리 성경 공부와 찬양을 하고 마지막 주는 학교의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모임을 가져 전도의 효과도 있다. 이번 여름은 고등부 회원들이 경험하며 훈련받은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

었다. 그것은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있었던 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올해 처음으로 갔었던 낙도 사역이 있었다.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25명의 고등부 회원들이 정남 화도 주님들과 함께 그곳으로 하고 성경학교도 열었다. 그곳의 반응이 너무 좋아 이번 성경 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을 겨울에 서울로 초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곳에서의 사역을 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 선교 사역이 있다. 이에 동참한 고등부 회원은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다녀온 몽골팀 중 2명과 8월 7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중국 2팀 중 4명이다. 올해 고등부에선 이렇게 따로 따로 단기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 네 내내에는 고등부 회원들도 하나님의 도를 단기 선교 사역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고등부 회원들이 실재선교 활동을 접함으로서 선교의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고 한다.

고등부에선 헌신하는 일꾼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다. 분반 공부 시간이 한 시간이 채 되지 않, 장소가 부족해 말씀을 깊 있게 공부하지 못하는 점과 고등부 회원에 비해 교사의 수가 적어 한 반의 교사가 모든 교도를 신장을 하느니 써 주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VISION 7000, 7000명의 헌신하는 일꾼을 키워 내겠다는 고등부에서는 이를 위해 더 많은 지도로 이끌어 나가며 모든 일로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우하우 헌신하며 사는 고등부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

(글/박주희 기자, 사진/이문구 기자)



교 회 소 식

● 알 림

- 1. 제3차 학습 및 세례식, 교육 안내 /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아래 교육일정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오늘 15:00-15:40
- 분담: 오늘 15:50-16:30, 각 구역별 장소
- 교육장소: 교육관 307호, 교육관 310호(유아세례)
*학습, 세례식: 16일(다음 주일) 전양예배시, 분담
*유아세례: 16일(다음 주일) 15:00, 김필리홀
 - 2. 놀이예배 하회전도대 / * 13구구11일~13일, 웅신교회, 대북부 3학년(10일~15일, 위솔교회), 나도전도대(10일~14일, 연호교회)
- 창년1부 7~13일(11일~15일, 상경리교회)
 - 3. 해의 단기선교회 / * 중구2부7일(금)~13일(목)
 - 4. 여름수련회 / * 창년2부(13일~15일, 충현기도원)
- 에바다부(14일~15일, 충현기도원)
- 사문선양대(14일~15일, 남양주군수원원)
- 헬렌벨라(14일~15일, 한일레크스원)
 - 5. 에바다부 하회기 수종교집 개강 / 16일(다음 주일) 15:00 교육관 109호에서 개강예배를 드립니다.
- 문과: 에바다부 고학년 / 기간: 16주
- 과정: 사경(수일) / 초급, 중급, 고급, 복음
- 시청각실 초중학생을 교육구역로 수집 / 시청각실에서는 가정에서 보지 않은 책과 성경에 관한 바티오디를 들을 수 있습니다.
- 수업자: 김승호 209호(수일 10:00~16:00)
 - 7. 크로아티아, 안셀린 대원집 / 초보자까지 누구나 환영합니다.
- 문과: 크로아티아-김승호 집사(598-0616), 안셀린-이은성 집사(3463-0434)
- 기간: 13일~10월말
- 연습: 매주 목요일 09:00-10:30, 나사렛홀
- 모 임
- 1. 장로 회색목회기도회 / 11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 2. 안수집사회 월요세백기도회 / 10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 3. 전도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405호
 - 4. 봉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사무국 회의실
 - 5. 주일오후목회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사랑방 예배실

- 6. 칠일전도회 월례회 / 9월 15일(월) 18:00, 만나홀
 - 7. 칠일전도회 목요일기도회 / 13일(목) 새벽기도 후, 선교관 전도회실
 - 8. 경향전도회 월례회 / 오늘 15:00, 감리홀
 - 9. 교육연구소 월례회 / 11월(금) 10부예배 후, 교육연구소실
 - 10. 안수집사회 수련회(전도회) / 오늘 15:30, 교육관 212호
 - 11. 안수집사회 부부기도회 / 14일(금) 23:00, 충현기도원
 - 12. 권사회 제2기 월례회 / 12월(수) 1부예배 후, 사랑방실
- 남녀전도회
- 1. 바 울 1 / 15일(월) 19:00, 복지관 뒤다보성당
 - 2. 바 울 3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314호
 - 3. 바 울 4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1호
 - 4. 베드로 2 / 오늘 15:00, 화원전도회실
 - 5. 베드로 12 / 16일(다음 주일) 15:00, 교육관 409호
 - 6. 베드로 14 / 아비레, 15일(토), 화장재 문의 (678-9968)(678-8204)(지장)
 - 7. 한 나 1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8. 한 나 2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9. 한 나 4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10. 한 나 5 / 오늘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2층
 - 11. 한 나 6 / 오늘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층
 - 12. 한 나 7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13. 한 나 9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414호
 - 14. 한 나10 / 오늘 교구모임 후, 분당 이층 수납개
 - 15. 한 나11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16. 한 나12 / 오늘 교구모임 후, 복지관 212호
 - 17. 한 나14 / 오늘 교구모임 후, 만나홀
 - 18. 한 나15 / 오늘 교구모임 후, 베다니홀
 - 19. 한 나16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20. 한 나17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307호
 - 21. 에스더 4 / 11일(월) 10:30, 분당 앞
 - 22. 에스더 14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1호
 - 23. 루디아 1 / 10일(월) 10:30, 사랑방실
 - 24. 루디아 3 / 오늘 교구모임 후, 만나홀
 - 25. 루디아 9 / 11일(월) 11:00, 선교면목
 - 26. 루디아14 / 11일(월) 11:00, 화장재 문의
 - 27. 루디아15 / 오늘 교구모임 후, 베다니홀
 - 28. 마리아 1 / 11일(월) 10:30, 사랑방실
 - 29. 마리아 4 / 10일(월) 10:30, 교육목회화관 야외영양

- 30. 마리아13 / 16일(다음 주일) 10부예배 후, 감리홀
 - 31. 마리아14 / 오늘 11부예배 후, 감리홀
- 별 세
- 1. 김형규 성도(예수신) 성도 남편, 제1교구 국가구약 / 7월 29일 별세, 7월 31일 장례
 - 2. 신재미 성도(김정식) 성도 모친, 최화자 집사 시모, 제14교구 구교도회 / 7월 30일 별세, 8월 1일 장례
 - 3. 김광근 집사(오정화) 집사 남편, 제12교구 후각구구약 / 4일 별세, 7일 장례
 - 4. 김경자 권사(손학) 장로 모친, 남양희 집사 시모, 제1교구 방배교회 / 5일 별세, 7일 장례
 - 5. 박정철 집사(서호영) 집사 부인, 제17교구 수납구약 / 5일 별세, 7일 장례
- 주세 및 전향회보 변경
- 1. 이호식 집사, 김명일 집사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3-2 목련A, 105-201, 전화: 0343-82-3867
 - 2. 박용삼 집사, 이현주 집사 / 의정부시 용현동 391-19 건평A, 103-1902, 전화: 0351-851-1223

■ 영상(비디오) 직인 모집

충현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영영성에서 근무할 성신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 1. 자격
세례를 받은 26세 미만의 남자
- 2. 근무처: 영상직 1명
① 전차 - 전기 계통의 이수자
② 화량과 편집의 경험자
③ PC사용 가능자
④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3. 제출서류
① 자필이력서(사진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자기소개서
※ 자기서는 채용 후 제출
- 4. 서류 제출할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952-8200(내선 402번)

금주의기도제목

- 1. 김장민 원로목사의 건강을 위임목사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관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2. 놀이예배와 함께 중구2부 단기선교일이 성령의 인도섭림 가운데 주어진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그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충현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을 안아 가지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게 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 3. 각 예배소회를 맡고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 4. 모든 성도들과 기원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짝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소서.
- 5. 세백기전도와 금요교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하여 힘있게 열리게 하소서.
- 6. 여름수련회를 잘 준비하여 은혜롭게 하시며 교사전담회 열매를 하라함 주셔서 더욱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 7.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용이 다른 성도들을 말씀에 강건케 하시기 위하여 하소서.
- 8. 예수, 세례, 유아세례, 개종 및 입교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장민
- 위임목사
김장민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경식
김원수 김재철 이윤수 정갑선
정현민 조준환 조철수 이창환
김영대 김민식 권현정 서광진 차명환
- 협동목사
윤영택 박영호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 안석열 김영대
- 김도사
이준경 박노현
- 침례전도사
이두만
- 여전도사
이태수 정영희 현정남 정복인 장영자
임태두 김경자 배옥인 최희혜 손희희
송향자 신동자 윤종호 오영숙 오인숙
김용수 한영준 박준희 박희자 김원숙
- 교역전도사
박영미
- 교육전도사
박인기 염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영익
송현식 김강중 조재민 최현우 최영구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 평신도선교사
황성태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민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연도자
1303	정재호	8	소양부		1316	김세희	19	대학부	김승현(4)	1329	김승배	19	에바다부	
1304	박덕민	8			1317	이재영	19	대학부		1330	이창훈	19	에바다부	
1305	김정동	8	소양부		1318	정유신	19	대학부	윤이향(13)	1331	나현연	19	에바다부	
1306	조시현	2	창년2부	김성순(2)	1319	김진희	19	대학부		1332	유수영	4	대학부	
1307	임해관	4	창년2부	서갑석(4)	1320	이승홍	19	대학부		1333	이승용	19	대학부	
1308	임해원	14	창년2부	고정희(7)	1321	현호인	19	대학부		1334	류유만	19	창년1부	
1309	고효정	14	창년2부	고정희(7)	1322	전인수	19	창년1부		1335	김종석	19	창년2부	
1310	송태성	17	베드로	이강근(15)	1323	최종진	19	창년1부		1336	채규인	4	베드로	
1311	남일우	8	대학부	정주희(8)	1324	이연아	19	창년1부		1337	이미윤	4	창년2부	
1312	정진민	17	바울		1325	허진영	19	창년1부		1338	김자경	10	창년2부	이유주(14)
1313	이재현	19	대학부		1326	임수진	19	에바다부		1339	전미영	19	고동부	
1314	김용진	19	대학부		1327	윤용석	19	에바다부						
1315	류성진	19	대학부		1328	손희국	19	에바다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물매

순교자

이 소 현(선사, 교구)



광 복 53주년을 맞이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의 꾀박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 순교한 믿음의 조상들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바칩니다.

살아난 순교자 중 내가 만난 여성 두 분이 이 절기가야 생각난다. 한 분은 사형집행 몇 시간 전 해방된 조국과 함께 6년간의 부류생활을 끝내다 지구촌 곳곳에 다니시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가 얼마전 순교하신 분이시다. 주옥 같은 믿음의 글이 실린 7권의 저서를 남기셨다.

또 한 분은 꽃다운 나이에 일본 형사 앞에서 앞잡으로 고문당하거나 여성 수감자로서 끝내 절혼도 포기하신 분이시다. 고문당할 때 제일 형사도 고개를 돌릴 정도의 더러운 행위를 보인 사람이 동족 남성이었다는 증언을 들을 때에

는 심장이 터질 듯한 아픔 속에서 오열을 금할 수 없었다. 그 분 역시 아름다운 시들을 남기시고 소천하시었다.

살은 어려운 선택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은 곧 선택하는 것이요, 선택한다는 것은 항상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말한 순교자들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모세'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다.

(지난 6월 7일자 주간충전에 실린 이소현 권사님의 글 '죽음' 중 '개신교'를 '기독교'로 바꾸어 표기한 것은 편집과정에서 생진 실수입니다. 기독교는 보통 천주교와 개신교로 분류됩니다.)

8월 16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 2·4부예배
소프라노 정동숙 김재현(창당)
(찬양곡목)
- 서로 사랑하라
- 오 신실한 주(찬 447장)
- 오 기쁨의 성전
- 나 주의 도를 행한(찬 349장)
- 이로운 일할 때(찬 342장)
- ◆ 3부예배
합창부(아남성중창단(합창부+찬양대))
(찬양곡목)
- 신도전경 - 너 용기 있게 따라
- 복을 세우라 - 주님
- ◆ 5부예배
변명 솔로리스트들(변명찬양대)
(찬양곡목)
- 나 하나님께 주께 귀한 헌신(찬 221장)
- 내 주께 봉헌(찬 431장)
- 이 세상 행하(찬 197장)
- 주님께 맡겨진 편지(찬 478장)

